



지수는 외국인에게, 업종은 기관에게

1. 외국인, 7월 이후 5.1조원 순매수

- KOSPI 기준 7월 이후 외국인은 5.1조원 순매수. 기관은 4.2조원, 개인은 1.5조원 순매도 중
- 6월 말, Brexit 충격 이후 증시 회복을 이끈 것은 외국인
- 기관은 KOSPI 2,000pt 위에서 매도하는 패턴을 반복

2. 환율의 정상화 과정 속 국내증시의 펀더멘털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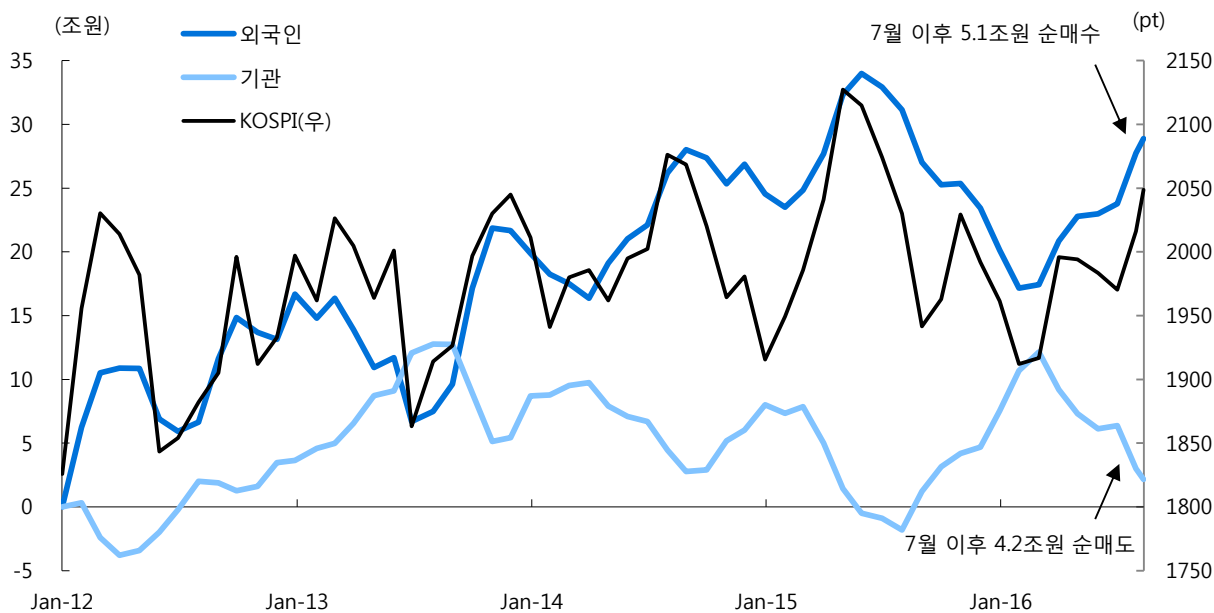
- 연초 1,2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00원 수준으로 하락
- 특히, 7월 들어 환율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환경 제공
- S&P의 신용등급 상향,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2분기 실적은 국내증시 펀더멘털 개선 요인

3. 수급 공백이 없는 업종/종목에 주목

- 외국인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수를, 기관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도 진행 중
-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업종/종목,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업종/종목에 주목
- 주목해야 할 수급 주체는 기관.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업종/종목은 수급 공백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
- 외국인 매수 상위 업종과 기관 매수 상위 업종의 수익률 괴리 존재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외국인 7월 이후 5.1 조원 순매수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KOSPI 기준 외국인은 7월 이후 5.1조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4.2조원, 개인은 1.5조원 순매도 중
- ▶ 6월 말 Brexit 충격 이후 지수 회복을 이끈 것은 외국인
- ▶ 외국인은 지난 2월 저점 이후에도 3~4월 강한 매수세를 통해 지수를 견인
- ▶ 기관은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에 따라 2,000pt 위에서는 매도하는 패턴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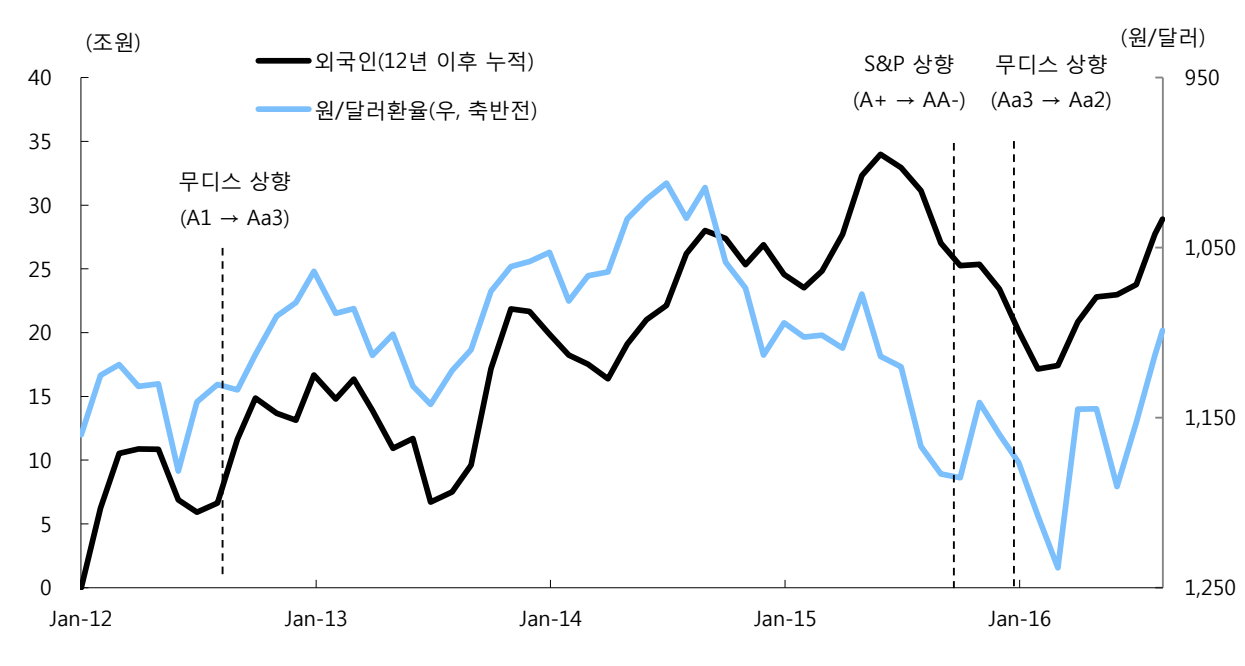
전일 KOSPI 지수는 2,048.80pt 로 마감,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Brexit 투표 결과가 발표된 6/24일 대비로는 100pt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KOSPI 지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2,000pt 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외국인은 7월 이후 5.1조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월 저점 때도 3~4월 5.4조원을 순매수 하며 증시 회복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주식형펀드 설정액의 유출입에 따라 기관은 2,000pt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7월 이후 4.2조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2. 환율의 정상화 과정 속 국내증시의 펀더멘털 부각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연초 1,2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00원 수준으로 하락
- ▶ 7월 들어 환율의 정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환경
- ▶ S&P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인 2분기 실적은 국내증시의 펀더멘털 개선 요인

연초 1,2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2월 말 1,240원대의 고점을 기록했고, 현재 1,100원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7월 들어 환율의 정상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국내증시의 12M FWD PBR(MSCI Index 기준)은 0.92배로 선진국 평균 대비 46% 수준에 불과하며, 2014년 이후 한번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Valuation 메리트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국내증시의 펀더멘털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환율과는 별개로 국내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발표중인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수출액 증감률의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수급 공백이 없는 업종/종목에 주목

7월	업종	순매수비중	수익률	8월	업종	순매수비중	수익률
기관매수상위 평균 +10.8%	조선	1.27	16.6	기관매수상위 평균 +3.2%	항공	1.42	11.4
	해운	0.91	8.9		해운	0.79	-1.4
	전자/부품	0.69	4.2		건자재	0.55	3.8
	증권	0.24	12.7		가스	0.51	3.8
	철강	0.24	11.7		증권	0.47	-1.6
외인매수상위 평균 +0.8%	비철금속	2.37	0.7	외인매수상위 평균 +2.8%	화장품	0.70	-0.5
	기계	1.24	10.8		기계	0.61	2.3
	디스플레이	1.09	9.1		디스플레이	0.53	3.5
	상사	0.79	-6.9		인터넷	0.49	7.7
	화장품	0.73	-9.9		비철금속	0.44	1.2
외인매도상위 평균 -0.7%	자동차	-0.55	-2.4	외인매도상위 평균 +0.2%	의료기기	-0.72	-3.1
	해운	-0.43	8.9		해운	-0.24	-1.4
	섬유/의복	-0.38	-7.9		전자/부품	-0.13	0.9
	호텔/레저	-0.23	-3.6		자동차	-0.12	0.1
	화학	-0.06	1.6		내구소비재	-0.12	4.7

주: 업종구분은 유안타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외국인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수, 기관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도 진행중
- ▶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업종/종목,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업종/종목
- ▶ 기관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 업종/종목은 수급 공백이 없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외국인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수를, 기관은 증시 전반에 대한 매도를 진행 중이지만,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발견됩니다. 매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수를 피하고 있는 업종, 매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도하지 않는(혹은 이미 비워놔서 매도할 것이 없는) 업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관이 매도하지 않는 업종은 수급 공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실제로 7월 이후 기관이 순매수에 나선 업종의 수익률(7월 12개 업종 +8.3%, 8월 18개 업종 +3.5%)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한편, 기관의 매수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외국인마저 외면한 업종이라면 수급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입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 5개 업종의 평균 수익률은 7월 -0.7%, 8월 +0.2%로 KOSPI 지수 상승률(7월 +2.3%, 8월+1.6%)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